

원 본	세이쿄 신문	발행일	2018-09-15			면(面)		
제 목	손에 쥔 ‘마음의 금메달’	내 용	2017 독일 세계 하모니카 대회 수상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0			

〈신앙 체험〉 손에 쥔 ‘마음의 금메달’ - 어느 시각장애 여성의 도전

다나카 레이코씨(65세, 오사카 미카노다이지부, 부인부)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빛의 명암은 구분하지만 일상에서 보조안내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 수영, 마라톤에 도전, 몇 번이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예를 안아도 지울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보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음악의 세계에 발을 내디딘 그녀는 지금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인다면

다나카씨는 어릴 적 모습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들 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다나카씨가 태어난 뒤 얼마 후, 집을 나갔습니다. 다나카씨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어머니가 왔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3살 때, 소아경풍등이 원인이 되어 실명하고 맙니다.

생모는 양손에 과자를 들고, 맹인학교에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행복한 가정이 유지됐다면 나는 시각장애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나카씨를 언제나 보살펴준 사람은 오빠 미스미 에이이치씨(81세, 야오시, 부권장)이었습니다. 1962년, 에이이치씨는 창가학회에 입회, 소원은 오직 ‘여동생이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1991년, 일본 장애인수영경기대회에서는 100미터 자유형과 배영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 후, 종목을 마라톤으로 바꾸어 1996년에 개최된 ‘제2회 세계맹인마라톤’에서 3시간 17분 50초로 제1회 대회에 이어 우승을 장식했습니다.

병으로 실명한 남편 마사히로씨 (58세, 장년부)와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여러 대회에 입상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결과를 남겨도 지울 수 없는 생각이 점점 마음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바로 ‘눈이 보인다면, 더 크게 활약할 수 있을텐데… 부모님이 원망스러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용기

2002년, 몸에 부정맥이 발견되어 스포츠는 단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음악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감각만으로 자유자재로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다고 생각한 다나카씨는 2015년부터 하모니카교실에 다녔고, 집에서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무렵, 교학부임용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아 시험보기는 어렵다’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다나카씨의 성장을 위해 기원해 주는 부인부의 진심에 감동하여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니치렌대성인의 생애, 그리고 창가학회 삼대회장의 정의와 투쟁을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신심을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나카씨는 독일로 갔습니다.

바로 ‘세계 하모니카 페스티벌 2017’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뿐인 이 대회에 흰 지팡이(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나카씨는 ‘동정이나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끝까지 출연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내 확고해졌고 도전 정신을 살려 어려운 곡인 ‘찌고이네르 바이젠’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친 순간. 환성과 박수가 연주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외국어들... 흥분한 청중들이 모두 그녀의 연주에 감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교류하는 가운데 어두운 마음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수상식!

결과는 ‘베리굿 상’ 수상!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그녀는 감사한 마음이 넘쳤고, 그 어떤 금메달을 딸 때보다도 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다나카씨는 ‘도전을 거듭해 마침내 마음의 금메달을 획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심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올해(2018년) 1월, 다나카씨는 아침부터 연주회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 예비용까지 총 3개의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넣었습니다.

외출할 때, 현관에 걸린 액자를 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새기는, 삶의 자세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지않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지지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바로 이케다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지지않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지지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다나카씨는 보조안내인과 함께 나라현립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지난 해, 이곳에서 열리는 미술관 콘서트 출연에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콘서트에 정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자택에서는 편도 2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지만 이곳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가엽게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행도 행복도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요 ‘어머니의 노래’나 아버지가 좋아했던 곡을 연주합니다.

연주회에서 그녀는 마음에 간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주회장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연주합니다’라고…

<끝>

● 참고 자료 링크 (컨트롤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체험담 원문 (Sumo7' s Blog)

<http://sumo7.hatenadiary.jp/entry/2018/09/15/181648>

유튜브 동영상 - 치코이네르바이젠 연주

<https://youtu.be/msJnJvtvUOY>

유튜브 동영상 - 연주회 (*13분 20초에 백만송이 장미)

<https://youtu.be/fuu-WVIT800>

2011년 부산 간사이 하모니카 교류회 연주 팸플렛

http://www.glayva.net/kansai/yotei/image/Pusan_concert_program.pdf